



‘20.04.02. 조간 (온라인 ‘20.04.01. 오전 9시 이후)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자료문의) 경영기획실장 김상연 (053-980-8200, sykim@kbri.re.kr)

한국뇌연구원 서판길 원장, 4개월간 급여의 30% 반납
-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국민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하기로

- 한국뇌연구원(KBRI)은 서판길 원장이 코로나19(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) 사태 극복을 위해 4개월간 급여의 30%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.
-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급여 반납이 이어지면서 서판길 원장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하였다.
- 특히, 한국뇌연구원은 감염병 재난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 소재함에 따라 지난달 15일 대구지역 코로나 생활치료센터(중앙교육연수원)에 임직원 성금 모금과 위문품을 기탁했으며, 코로나 극복 손글씨 릴레이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.
- 서판길 원장은 “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,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”며 “한국뇌연구원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[사진1] 한국뇌연구원 전경



[사진2] 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